

개관 1주년 맞은 광주독립영화관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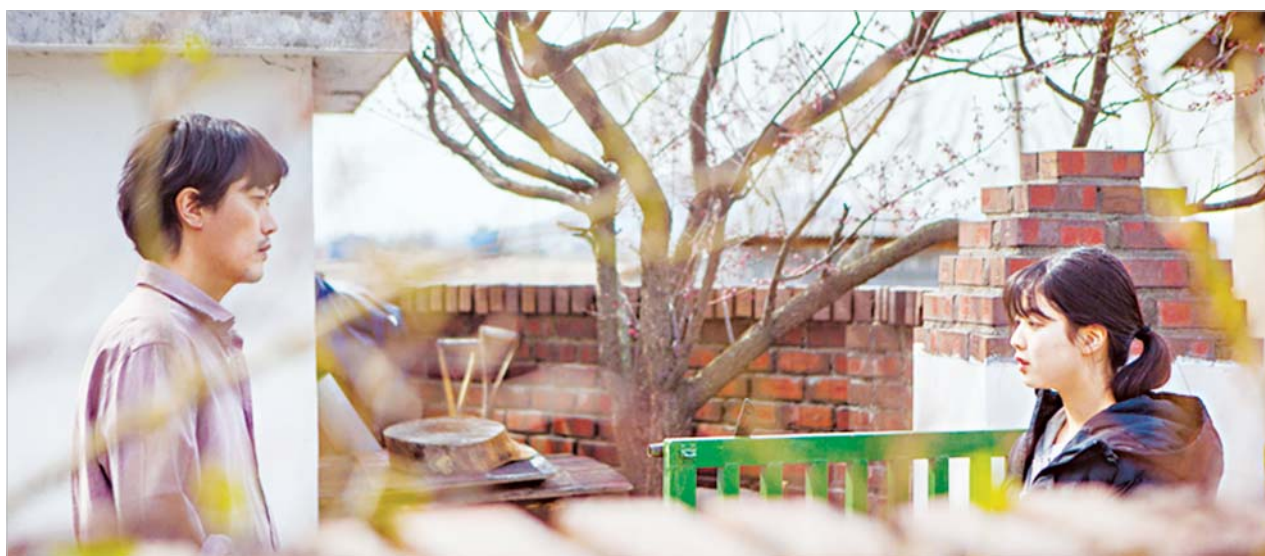
광주독립영화관(관장 윤수안)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일부터 5월2일까지 GIFT's gift를 마련한다.

GIFT's gift는 지난해 개관 기획 전에서도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문화 예술인들이 추천한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추천 인사와 관객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첫 포문은 '메소드'의 방은진 감독

다. 장 감독은 이날 자신의 데뷔작인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을 소개한다. 작은 섬에서 일어나는 비극적 삶과 복수를 시사한다.

한국독립영화의 스타 배우 중 한 명인 배우 김새벽 씨는 자신의 출연작 '국경의 왕'을 추천했다. 이 영화는 친구를 만나러 폴란드에 간 유진(김새벽)과 우크라이나에 간 동철(조현철)이 제각기 경험하는 에피소드로



영화 '히치하이커'

11일부터 5월2일까지 독립영화 상영·관객과 대화 방은진 감독·김새벽·나희덕 시인 등 영화 추천 참석

이 연다. 방 감독은 개관 1주년을 맞는 오는 11일 광주독립영화관을 방문해 영화 '메소드'를 상영한 뒤, 관객들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 감독의 4번째 영화인 '메소드'는 메소드 연기로 정평이 나 있는 연극배우가 아이돌 스타와 2인극의 주연 배우로 만나 극과 현실을 혼동하며 빛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영화는 광주에서 촬영한 것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영화 속 곳곳에 양림동과 사직공원이 등장한다.

14일에는 '은밀하게 위대하게'로 큰 흥행을 거둔 장철수 감독이 참석한

구성되며, 무엇보다 동유럽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영화다. '국경의 왕'은 오는 18일 만나볼 수 있다.

'선화와 슬기'를 상영하는 20일에는 이 영화를 추천한 안재훈 감독과 영화를 연출한 박영주 감독이 동반 참석한다. 박 감독의 데뷔작인 '선화와 슬기'는 타인의 주목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선화의 이야기로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GIFT's gift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ACC시네마테크 프로그래머인 김지하 씨와 예술영화전용관인 광주

극장의 김형수 전무 등 지역 문화계 인사를 초청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김지하 씨는 ACC시네마테크가 아카이브한 영화 중 '24분의 1초의 의미' (1969년, 김구림), '구멍' (1974년, 한옥희), '오버 미' (1996년, 임장재), '철의 여인' (2008년, 김곡) 등을 오는 22일 선보이고, 이들 영화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예정이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파티51'을 추천했다. '파티51'은 공연할 곳을 찾지 못해 해매는 흥대의 인디 뮤지션들이 칼국수집 두리반이 강제 철

거될 위기에 처하자 힘을 합쳐 예술적 농성을 펼치는 과정을 기록한 영화다. 24일에는 김 전무를 비롯한 '파티51'의 정용택 감독이 함께한다.

나희덕 시인은 한글을 깨우친 후 시(詩)를 써서 '시집살이 詩집살이'를 발간한 전남 곡성군 탐동마을 할머니들의 일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시인 할매'를 추천, 오는 26일 광주독립영화관을 찾는다.

27일에는 윤성현 감독의 '파수꾼'을 상영한다. '파수꾼'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청소년들의 마음의 풍경을 담은 영화다.

'사냥의 시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윤성현 감독도 파수꾼을 들고 광주독립영화관을 찾는다.

개관 1주년 기획전의 마무리는 조영각 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추천작 '히치하이커'가 장식한다. 열여섯 살 소녀 정애가 어릴 적 집을 나간 엄마를 찾아 나서다 친구의 친아빠로 의심되는 현웅을 만나 벌어지는 여정을 담고 있다.

개봉 중인 영화 3편(시인 할매, 선화와 슬기, 히치하이커) 이외의 상영작은 무료로 상영한다.

문의 062-222-1895. /이보람 기자

- ◇지아셀 플루트 독주회=8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 ◇천원의 낭만=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박강수 광주콘서트=9일 오후 7시 30분 광주피크닉뮤지움
-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 '랩소디 페스티벌'=9일 오전 11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ACC브런치 콘서트 '서일영x안남근의 댄서 하우스'=10일 오전 1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42회 정기연주회 2019 교향악 축제 프리뷰 콘서트: 전람회의 그림=11일 오후 9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 초청 판소리 공연=11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 ◇변개맨과 블랙홀 대모험 앙코르=13일~1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오전 11시·오후 2시·4시 30분)
- ◇ACC 창작작 어린이공연 '우산도둑'=13일~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오전 11시·오후 3시)
- ◇가족뽀로로=13일~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오전 11시·오후 2시·4시 30분)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 '랩소디 페스티벌'

내일 오전 11시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의 2019 기획공연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 '랩소디 페스티벌'이 9일 오전 11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라흐마니노프, 리스트, 브람스, 바르토크 그리고 영국의 록 밴드 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랩소디와 그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랩소디(Rhapsodie)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일리아스'와 같은 서사시의 한 부분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음악에서는 서사적·영웅적·민중적 성격을 갖는 환상풍의 자유로운 기악곡을 의미한다.



김이곤



김정은

24번의 주제를 차용해 탄생했다. 헝가리 마자르 사람들의 춤곡인 차르다시(csardas)를 소재로 만들어진 '헝가리 광시곡'은 자유롭고도 열정적인 랩소디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광시곡이라고도 불리는 랩소디를 음악 해설계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리는 김이곤이 소개한다. 4인조 남성 피아니스트 그룹 양상블클라비어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방기수와 활발한 독주 및 실내악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이 랩소디의 진면목을 선보인다.

공연 후 관객에게 커피와 머핀이 제공되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전석 1만 원. 문의 062-613-8235. /이보람 기자



지난 3월에 열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워크숍.

광주여성재단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에서 활동 중인 폭력예방교육사업 전문강사들의 강의능력 향상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젝트다.

광주여성재단은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문강사들과 함께 폭력예방의 쟁점 및 교육 방향,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적인 운영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은 5일에 걸쳐 20시간 동안 재단 내 8층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670-0537. /이보람 기자

- ◇미디어338 기획전1 꽃길을 걷다=9일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미디어 338(사진)
- ◇2019년 청년작가 릴레이 기획전시 '소소한 이야기 1-기디립展'=14일까지 드림미술관
- ◇이승현 개인전 'light'=12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 ◇신춘기획전 'Planet Scene' 식물이 있는 풍경'=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 ◇시각디자인 동아리 '플러그인' 전시=8일~12일 조선대학교 미술관
- ◇정선 서양화전=10일~21일 양림미술관
- ◇정준표 개인전=11일~23일 광주신세계갤러리
- ◇커피사회=11일~6월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3, 4관
- ◇원화 전시 '싸워도 돼요'=12일~27일 서구 문화센터 계단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나주, 다도담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전원주택, 펜션, 별장등 최고장소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토목공사 완료
- 150평~200평씩 분할 매매 가능
- 매매-14억2,3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